

## '87 韓·美防産會議 開催

韓國防衛産業振興會

常勤副會長 柳 俊 馨

87年度 韓·美防産會議가 4月 6일부터 11日 까지 서울에서 兩國 關係者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會議에서는 韓·美防産業體間의 共同利益追求 및 實質的인 協力方案 등이 論議되었다는 점과 兩國의 防産裝備 및 部品, 物資展示會와 主題發表도 가졌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이번 會議는 韓·美防産業體間의 協力增進 뿐만 아니라 앞으로 協力事業을 위한 効果적인 方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兩國業體間에 技術交流와 지원을 통하여 共同利益을 追求하고 質的向上과 研究開發·共同體를 마련해서 國防力을 강화하는 데에서 韓·美防産會議에 意味를 찾을 수 있었다.

먼저 '87 韓·美防産會議開催에 따른 致辭 및 人事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 李基百 國防長官 致辭

마일리 美 防衛準備協會 會長님, 柳 俊 馨 韓國 防産振興會 會長님, 그리고 韓·美兩國의 防産

《國防과 技術 1987.5》

振興을 위해 貢獻하고 계시는 兩國代表 및 會議 關係者 여러분!

本人은 먼저 第2次 韓·美防産會議 및 展示會가 이곳 서울에서 開催된 것을 衷心으로 축하하며, 이를 契機로 韓·美間 防産協力關係가 더욱 敦篤하게 발전되어 兩國의 國益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周知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韓國의 防衛産業은 自由와 平和를 수호하려는 韓·美兩國의 密接한 共同協力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北韓共產集團의 南侵威脅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自主國防이라는 國家最優先課題를 조속히 달성하고자 GNP의 6%, 政府財政의 1/3이라는 힘겨운 부담을 堪耐하면서 防衛力增強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에 步調를 같이한 防衛産業도 長足の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韓國의 防衛産業은 技術問題, 物量의 限界性, 그리고 內外與件 등 각종 制約이 뒤따르고 있어 아직도 要望水準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운 問題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我國의 防衛力發展에 커다란 沮害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韓國防衛産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韓·美間의 協力強化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이를 위해 韓·美防産業體 相互間의 自律的인 協력이 필요하다는데 認識을 같이하여 昨年 워싱턴會議에 이어 今番 '87 韓·美防産會議 및 展示會를 이곳 서울에서 開催하게 된 것 인바, 本人은 여러분과 더불어 本行事의 훌륭한

성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87 韓·美防産會議을 開催함에 있어서 本人은 韓國防衛産業과 美國防衛産業間의 協力關係에 대해 평소의 所信을 披瀝하고자 합니다.

우선 韓國의 防衛産業의 歷史는 이제 겨우 20 餘年 밖에 되지 않는 日淺한 것이지만, 그 發展速度는 駭異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自主國防을 달성하기 위해 防衛産業을 육성한 것이지만 防衛産業의 수준과 地政學的 與件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防衛뿐만 아니라 東北亞, 나아가서 自由世界의 防衛資産으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役割과 使命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를 통해 韓國防衛産業이 보다 새롭게 跳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美國이 現在와 같이 自由世界의 리더로서 反共의 堡壘로서의 役割을 다하기 위해서는 自由友邦國과의 밀접한 經濟關係를 바탕으로 相扶相助하면서 최대한의 戰力增強을 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韓國과의 협력관계도 더욱 敦篤히 해야 할 것입니다. 特히 世界武器交易量 中 37%를 차지하고 있는 美國이 현재와 같이 世界武器市場에서 계속적인 優勢한 競爭力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先進開發途上國인 韓國과의 긴밀한 協力關係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本人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美國은 防衛産業에 대한 오랜 歷史와 높은 研究開發費 投資를 통하여 尖端技術의 高度精密兵器를 생산할 수 있는 長點이 있는 反面, 韓國은 低廉한 가격으로 良質의 部품을 생산할 수 있는 能力이 있으므로 韓·美兩國이 갖고 있는 長點을 서로 보완하여 協力を 한다면 相互利益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平時에 韓·美防産의 긴밀한 協力關係維持는 韓·美防産裝備의 互換性, 信賴性, 標準化 등을 제고시켜 줄 것이며, 有事時 自由世界의 防産資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聯合作戰의 성과를 極大化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世界技能올림픽에서 6連覇를 달성한 우

수한 技能과 組織化된 값싼 勞動力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의 無限한 潛在力이 美國의 高度화된 技術力量이 합쳐질 때 그 發展速度는 加速化될 것입니다.

따라서 向後 韓·美防産의 大命題는 垂直分業에서 水平分業으로 競爭關係가 아닌 相互補充關係로의 발전을 위해 兩國이 共同步調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俗談에 “시작이 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韓·美防産體間의 協력을 시작하는 時點에서 本人은 韓·美防産協力の 無限한 發展可能性을 굳게 믿고 있는바 이 可能性을 위해서 이번 會議가 韓·美防産의 共同繁榮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積極적인 協調와 努力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政府에서도 최선을 다해 支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會議가 더욱 발전되어 韓·美防衛産業의 共同繁榮은 물론, 自由世界의 防衛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衷心으로 祈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인버거 美國防長官메시지

美國과 韓國의 相互安保利益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美國防衛準備協會와 韓國防衛産業振興會 主 催로 産業協力會議을 개최하는 진취적인 노력을 致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美國防省은 韓國의 防衛力과 관련한 相互安保關係와 兩國의 協력이 東西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에 기여하는 役割을 매우 重要視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兩國은 韓國軍現

代化와 韓國防衛産業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數年間 밀접한 관계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美國과 韓國의 安保關係가 成熟度를 더해가고 있는 時點에 韓國의 防衛産業도 보다 더 現代化 되는 일이 매우 時急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會議과 展示는 兩國政府의 國家的 安保利益을 크게 進展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으며 성공적인 行事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柳纘佑 韓國防振會長 歡迎人事

尊敬하는 李基百 國防部長官님, 릴리大使님, 마일리將軍님, 그리고 韓·美防産業體 代表 여러분!

오늘, 本人이 韓國防衛産業振興會 會長으로서 滿場하신 內外貴賓 여러분을 모신 이 榮光스러운 자리에서, '87 韓·美防産業會議에 참가하신 代表여러분께 歡迎의 人事말씀을 올릴 수 있게됨을 無上の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防衛産業分野에서 韓國과의 協力關係를 모색하고자 불원천리하고 韓國을 찾아주신 美政府關係官과 防産業體 代表여러분께 韓國側을 대표하여 衷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韓·美兩國은 歷史적으로 1世紀에 걸쳐 전통적인 友邦國家로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모든 면에서 긴밀한 友好的 協力關係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近年에 와서는 韓國戰과 越南戰으로 인해 맺어진 兩國間의 高貴한 血盟關係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韓·美兩國間의 이러한 安保紐帶를 전제로 생

각할 때, 이제 韓國의 自主的 防衛能力增強과 防衛産業의 발전은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을 크게 기여할 뿐아니라 나아가 美國의 安保利益에도 많은 寄與를 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基本的으로 認識을 같이할 수 있을 것으로 本人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韓·美兩國政府의 후원하에 韓國과 美國에서 순차적으로 每年開催키로 되어 있는 韓·美防産業會議는 防産業體間의 共同協力 增進方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뿐 아니라, 今後 韓·美間의 安保利益에도 매우 큰 役割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美國과 韓國의 防衛産業은 비록, 그 成長의 背景이 다르고, 또 防衛概念上 그 중점을 두는 분야가 각기 相異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兩國이 相互協力한다면 互惠의인 발전을 追求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 확실하며 또한 이러한 協力關係는 民間對民間의 業體間 相互協力方式이어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本人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防衛産業은 1970年代에 韓半島를 둘러싼 戰爭危脅이 증대됨에 따라 自主國防을 早期에 달성해야 한다는 國家的 命題下에 비록 先進諸國에 비해 뒤늦게 착수되긴 하였지만 그간에 政府當國의 강력한 支援施策에 힘입어 이제 防衛産業體의 生産技術水準은 在來式 兵器의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을 뿐아니라 一部高度精密兵器의 생산을 위해서는 初步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段階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韓國의 이러한 現實情을 토대로해서 韓·美兩國의 防産業體代表가 이번 會議를 계기로 하여 相互協力할 수 있는 對象과 分野를 서로 진지하게 論議하고 追求해 나간다면, 今後 兩國業體間의 共同利益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會議가 거듭되어 나아갈수록 兩國間의 安保利益에도 크게 貢獻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行事を 준비하는데 物心兩面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長官님을 비롯하여 國防部 當國과 美國防衛準備協會 關係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深甚한 謝意를 표하

며 아울러 멀리 美國에서 오신 代表여러분께서 서울에 머무시는 동안 아무쪼록 즐겁고 有益 時間을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所望하며 이만 歡迎人事에 갈음합니다.



**마일리 美國防衛準備協會長 메시지**

本人은 韓·美間의 防衛産業協力關係를 발전 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이번 會議에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하는 바입니다.

大韓民國은 韓國戰 이래로 美國과 自由陣營國家의 진정한 盟邦입니다. 더욱이 韓國戰 이래 自由陣營에 중요한 防衛力을 제공하고 있는 美國의 軍事力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와인버거 美國防長官은 최근에 本會로 하여금 美國防産協會들을 代表하여 韓·美防産業體들이 참가하게 될 이번 會議와 展示會를 韓國防衛産業振興會와 협조하여 발전시키고 준비하도록 要請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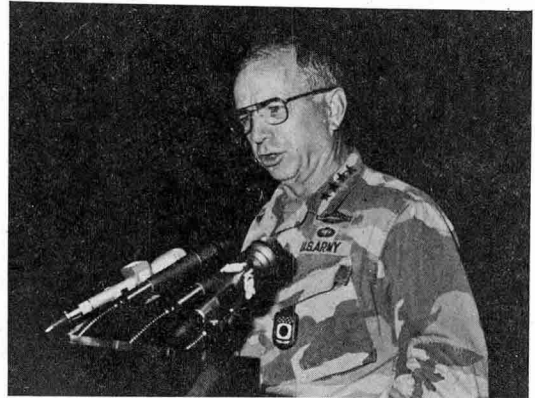
이번 會議의 기본적인 목표는 武器體系와 軍事裝備 및 物資를 개발하고 생산함에 있어 美國과 韓國業體들의 지속적인 交流를 통하여 兩國의 防衛産業能力을 연결하는 동시에 共同利益分野를 식별하고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概略적으로 분석하여도 兩國의 産業構造는 밀접한 提携가 이루어진다면 여러分野에서 能率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相互補完的인 樣相을 보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韓國防衛産業振興會와 더불어 이번 會議와 展示會를 主管함은 美國과 韓國의 産業體間에 장기적인 협력關係를 構築하기 위한 整地作業이며 나아가서는 兩國의 共同防衛와 安保關

係를 다져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以上과 같이 關係者들은 이번 會議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뜻있는 行事が 되기를 기대했다.



**리브시 韓·美聯合司令官 朝餐演說**

리브시 韓·美聯合軍司令官은 防産會議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현재 韓半島地域에서 進行中인 팀스피리트訓練은 北傀가 過關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警告的 意味가 있다」고 말하고 「東北아시아에서의 軍事力均衡과 韓·美 役割」이란 題目으로 朝餐演說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만약 北傀가 過關해 南侵을 할 경우 駐韓 UN軍은 北傀의 심장부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브시司令官은 또 北傀는 休戰線 가까이 軍事力을 배치하고 최근에는 소련航空機들의 韓半島上空에 偵察비행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 팀스피리트訓練은 敵의 侵略에 대한 防衛力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릴리 美大使 오餐演說**

릴리美大使의 午餐演說을 要約하면 韓·美防衛産業會議는 두나라의 相互利益에 이바지 해 온 韓·美間의 防衛同伴者 關係가 점차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했으며, 韓國에 주재하는 代表者로서 韓國이 敵의 침략에 대응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韓國經濟는 工產品과 消費者 商品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活力的이고 效率的인 경제발전을 해왔습니다. 작년 가을 아시아競技大會를 主催하는데서 보여주었고, 또 1988年度 올림픽大會를 主催하는 데서 다시 보여줄 體育과 組織面의 능력은 놀랄만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韓國의 방위산업계가 美國의 방위산업계를 補充할 수 있는, 또 앞날의 협력을 通해 韓·美 두나라의 相互利益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韓國政府는 최근 知的 所有權을 보다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立法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方向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美國會社들을 위해서는 물론 韓國會社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前進의 한 걸음이며 이 새로운 法律의 시행이 韓·美會社들에 대한 技術移讓을 보다 호의적으로 다루도록 鼓舞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本人은 美國會社들이 韓國會社들과 기꺼이 협력할 用意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防衛産業과 其他産業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防衛産業이 관련되는 경우 모든 나라가 이 産業이 스스로의 防衛를 當당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의무는 戰時에도 防衛産業基盤의 「生存」을 보장하고, 防衛情報를 보호하며, 필수적인 技術들을 키울 必要性 같은 제약도 加합니다. 美國은 侵略을 저지하고 北韓의 敵對的인 태도와 北韓이 武裝地帶에 따라 배치한 軍隊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韓國軍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會議에 모인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以上과 같이 릴리美大使는 韓·美防衛産業會議에서 말했다.

그리고 '87 韓·美防衛産業會議中에 主題發表는 다음과 같다.

- 韓國에서의 防衛産業成就와 展望  
—柳仁衡 少將
  - 産業協力を 위한 政策 및 施行  
—美陸軍安保司令部 次長 브라이언트·더넛즈
  - 韓國의 經濟狀況  
—商工部 林寅澤
  - 美國의 防衛産業과 産業協力展望  
—제네랄다이나믹스社 理事 갈먼·밀리아
  - 韓國의 防衛産業과 産業協力展望  
—豐山金屬(株) 副社長 金尙憲
  - 防衛産業을 위한 研究開發機會  
—電子會社 副社長 프레드·헤인즈
  - 防衛産業研究·開發協력과 技術移轉  
—姜涓勳 博士
  - 北大西洋 條約國과의 産業協力經驗  
—레이디에온社 理事 에드워드·버스크
  - 韓國에서의 事業經營  
—財務部 洪在馨
  - 韓國軍需物資 調達節次와 展望  
—國防部 李昌九 少將
  - 美國業體와의 事業經營  
—성어社 部長 미샬·스테판
  - 外國業體를 위한 美國防省 調達節次 및 規程  
—美國防省 윌터·헨더슨
- 以上과 같이 主題發表를 끝마치고 産業視察을 하였다.



韓·美共同議長

이번 회의에서 韓·美共同議長인 防振會常勤 副會長인 本人과 美國防衛準備協會의 FISH 將軍은 다음과 같은 결론과 건의가 담겨있는 합의

서에 상호 서명 하였다. 여기에 그 합의서 내용을 소개한다.

### 合議書

1987年度 韓·美防産會議는 韓·美防産業體間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켰다. 이와 같은 協力增進은 兩國業體間의 對話增進뿐만 아니라 協理事業으로 誘道할 수 있는 兩國業體의 고유한 長點을 깊이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깊이 있는 對話를 추진함으로써 달성되었다.

兩國의 相互安保利益은 兩國防衛産業生産의 특정한 분야에서 韓國의 기능과 美國의 高度技術을 보다 효율적으로 結合함으로써 增進될 수 있다는 概念이 表出되었다. 또한 우리가 도달한 討議와 結論은 協力的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添언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이 競爭이 아닌 協力的 자세가 차후의 事業關係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兩國의 各별한 기준관계에 더욱 貢獻하기 위하여 兩國業體가 相互補完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나간 해와 今年行事를 통하여 이미 樹立되고 浮刻된 기초를 더욱 다져나가기 위하여 持續的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絶실하다 할 것이다.

防衛産業基盤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이룩하려는 共同目標을 다지고 나아가 兩國의 相互安保關係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8年度 韓·美防産會議는 다음과 같은 특정분야에 有益하고 措置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三大主要市場, 즉 美國 國防省 調達, 韓國 國

防調達 및 對友邦國 판매에 대한 接近節次를 합리화하여 韓·美共同防衛産業의 市場擴大

—共同研究開發結果를 포함하여 韓·美業體의 知的所有權 保護

—大韓民國 國防部 및 美國 國防省과 協의하여 韓·美兩國軍의 軍事所要와 年 कै일法案의 規定에 일치하는 協力的인 研究開發機會를 認知하기 위한 節次를 발전시킬

—절충교역을 승인함에 있어 韓國政府가 신속한 반응을 보여 機會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措置를 포함하여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아닌 同伴者로서의 協력에 相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現行 절충교역節次를 합리화

등 韓·美間의 協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이번 會議에서 業體對業體間의 접촉을 확대하고 對話를 증진시킬 구체적인 措處를 취하여야 함을 認識하였다. 장차 韓·美業體間의 會議과 직접적인 접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次期會議는 1987年度에 美國에서 美國防衛準備協會가 주최하도록 합의하였다.

따라서 韓國防衛産業振興會와 美國防衛準備協會는 韓·美防衛産業協力에 관한 討論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定期的으로 만나기 위한 共同運營委員會를 設立하여야 하며, 韓國防衛産業振興會와 美國防衛準備協會는 同委員會에 지속적인 行政支援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1987年度 會議의 共同議長으로서 우리는 위와 같은 結論과 建議事項에 견해를 일치하였다.

